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마음공부 <마지막>

# “마음공부 배우니 내 마음이 편해졌어요”

본지는 한마음과학원과 공동기획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마음공부'를 6주간 진행했다. 기획기사를 통해 본지는 한마음과학원에서 2005년부터 연구·개발해 오고 있는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과 교재 <꽃을 피우는 나무>(학지사 편) 내용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재구성했다. 이번 마지막 회에서는 교육현장과 불교계 어린이·학생회에서의 '마음공부'를 통한 인성교육의 가능성 및 기대효과를 살펴봤다.

이은자 기자

### 금산 간디학교 여름 필리핀 캠프 교육 후기

## “공격적인 학생이 수용적인 태도로 바뀌었어요”

“지옥 같던 생각을 마음공부를 통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꿀 수 있었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공부를 했다. 정말 보람차고 나로서 훌륭한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이런 걸 왜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 돌보기 시간으로 내 마음이 좀 더 편안해 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짧은 기간 동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 덕분이었을까.

숲속마을 작은학교는 7월 24일~8월 15일 3주간 필리핀 네그로스 주 발렌시아 소재 간디학교 국제캠퍼스에서 ‘2011 간디 여름 필리핀 캠프’를 진행했다.

금산 간디학교(교장 양희규)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인 숲속마을 작은학교가 개최한 ‘간디 여름 필리핀 캠프’를 다녀온 학생들의 후기이다. 모자를 꼭 눌러쓰고 사람들과 소통을 일절 하지 않던 학생이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주의가 산만하던 어린이들이 수업에 집중 하는 등

캠프는 초등부 12명, 중등부 15명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 >필리핀 감성교과 및 체험학습 >인성교육 등을 실시했다.

캠프를 진행한 손형우 해외캠프팀장과 유미 간디학교 생태교육 교사는 한마음과학원에서 개발한 청소년 인성개발 교재 <꽃을 피우는 나무>를 참고자료로 매일 취



간디학교 필리핀 캠프 인성교육에 참여한 학생들



간디학교 손형우 팀장(왼쪽)과 유미 교사

침 전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 시작 전 학생들은 용광로를 연상하는 트레이닝을 했다. 짜증 번뇌 욕망 두려움 불안감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내면의 용광로 속에 넣는 작업을 했다. 이후에는 본지에 소개된 >마음법칙을 찾아서 >내 마음 다스리기 등의 내용을 토대로 수업을 진행했다.

손형우 팀장과 유미 교사는 한마음공생 실천과정 17기 졸업생이다. 이들은 공생실천과정에서 배운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이번 캠프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초등학교 6학년 중에 공격적인 아이가 있었어요. ‘싫어요! 아 왜요? 몰라요!’라며 반항만 하던 학생이었는데 수업태도가 바뀌었어요. 수용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더라고요.”

유미 교사는 “필리핀 캠프에서 밤 시간에 진행할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었다. 그 시간에 아이들에게 자유 시간을 줘도 되는 데 요새 아이들의 특징은 게임기, 만화책 등 매체가 없으면 놀지 못한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손형우 팀장은 “<꽃을 피우는 나무> 초·중등 콘텐츠를 모두 활용했다. 캠프 후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으로 꼽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산만하고 공격적인 아이들이 단기간에 변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 간디학교는 대학교 강의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수강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2학기 수업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토대로 한 수업을 시작했다. 금산 간디학교 (041)753-2586

### 본지 기획기사에 참여한 김민선 교사 후기

## “학교가 수행의 현장이 됩니다”

본지 제848~853호에 연재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마음공부’ 기사는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진으로 참여한 바 있는 김민선 교사(경남 밀양 초등학교)가 함께했다.



다”며 “그 덕분에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갈등과 직장 상사와의 갈등조차 좋은 화두가 됐다”고 말했다.

김민선 교사(사진)는 2010년 경남도교육청에서 시상하는 ‘경남 사도 실천상 수상’을 수상했다. 김 교사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학교에 초빙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습부진 학생을 담임해 인성교육을 통해 문제야를 지도했다.

김민선 교사는 학생·학교와 갈등을 빚는 교사들에게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했다.

김민선 교사는 특별보충과정 운영으로 2010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부진학생 모두를 구제했다. 김 교사가 이러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 덕분이다. 김민선 교사는 “마음공부를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도구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한나무 인성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서부터 학교가 수행의 장이 되기 시작했

그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내 자신이 교사로서 마음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때가 많다”며 “아이들 혹은 학교라는 상황과의 갖은 마찰로 교단을 떠나고 싶다는 선생님들에게 이런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함께 맞출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어린이수련회 사례

## 아이들이 마음의 힘을 이해해요

한마음선원 포항지원은 7월 16~17일 어린이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마음의 계절’이라는 주제로 현지 초등학교 교사 6명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까지 학년별로 담임을 맡아 진행했다.



포항지원 여름수련회에 참가한 어린이들

담임교사들은 한마음과학원 인성교육 교재 <꽃을 피우는 나무>를 활용해 >내 마음의 이름 짓기 >내 마음의 용광로 체험을 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마음의 힘을 기르도록 지도했다.

이들이 정말 좋아했다”며 “아이들이 마음의 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지도 교사 해룡 스님은 평소 어린이법회를 진행할 때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게 다양한 놀이와 체험학습을 병행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된 마음공부를 가르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이번 수련회에서 <꽃을 피우는 나무>교재를 활용해 법회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또 해룡 스님은 “평소 주인공에게 관(觀)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잘 와 닿지 않아 어린이 법회를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앞으로 <꽃을 피우는 나무>교재로 실질적인 마음공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해룡 스님은 “아이들에게 마음 속 용광로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가르쳤더니 아

### 지홍 스님의 한평생 산다는 것은

## “극락세계는 참말로 있지요?”

매일 아침 병원 병당 문에 들어설 때마다 다시 한 번 되뇌여 본다. 살아 숨쉬는 행복을 얼마만큼 온전히 느끼고 있는지.

머칠 전 한 병실을 방문했다. 환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아! 부처님! 저 환자에게 아픔의 고통을 가져가시며 편안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주소서”라는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왔다.

환자는 몇 년 전 발병한 위암을 잘 이겨냈다. 그는 그동안 병원에서 같은 병명을 가진 환자들에게 식이요법과 통증을 이겨내는 것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함께 기도하며 마음의 편안을 줬다. 발병 이후 4년이란 세월을 마치 40년이라 생각하고 아주 즐겁게 서울아산병원 병원법당에서 자원봉사를 해온 인물이다.

발병 5년째가 되던 해 위암은 결국 골수과 폐에 전이가 되어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다. 폐에 물이 생겨 물을 제거하고 나면 또 차고 해서 이전 산소호흡기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게 돼 버렸다. 주치의는 1주일만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봐라! 많이 아프제.”

“예, 스님! 너무 아픍니다. 인자 가고 싶어요. 부처님 계시는 극락세계로. 스님, 극락세계는 참말로 있지요?”

“그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미타경>에 보면 저 10만 억 국토를 지난 곳에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가 있다. 그건 세상과 문노?”

“인자 그만 아프고 고마 같습니다. 시님!”

“왜 자꾸 갈라카노.”

“시님! 남들은 수술하고 1년 더 산다고 하던데 저는 4년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맙지요. 아들 의과대학 보내고 1년만 더 있으면 하얀 의사 가운 입는 것 볼 텐데 그때까지는 못 있었습니까. 스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그래, 보살님은 남들 40년 동안 좋은 일 할 것을 지난 4년 동안 다했다. 그 4년 세월을 40년 세월이라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왔다고 고맙다하실 것이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른 환자들을 보살핀다고 얼마나 애썼노. 부디 다음 생에는 튼튼한 몸을 받아 이생에서 못다 한 일 다음 생에 다 하소. 다음 생에는 무엇하고 싶노.”

환자가 힘들게 대답한다.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안 태어날랍니다.”

다. 그냥 극락세계에 계속 있을랍니다.”

“그래,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행복하소. 이생의 일이랑 다 잊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계속 하소. 아미타부처님께서 그대를 연꽃봉우리에 태우고 저 극락으로 가실게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깐다 생각하소. 편안하다 생각하고, 그윽한 향내를 생각하고, 부처님세계를 생각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소.”

“예!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환자는 정말 이번 생에 대한 모든 미련을 다 놓아버린 것 같았다. 가끔 인종 환자들을 보면 이생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다. 본인도 가족 모두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생에 대한 마지막 끈을 놓지 않는다. 하지만 이 환자는 자연스레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그 누구보다도 아주 편안하게 살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이를 뒤 환자는 아주 조용하게 몸을 바꾸었다.

“그대가 움직이는 모든 곳이 아직 그대로인데 그대는 마치 리모컨으로 채널 돌리듯 다른 세상에 있구려. 잘 가소. 그대가 점심시간마다 가끔 공양해주시던 커피, “시님!”하며 부산사투리 그대로 나를 부르던 목소리,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과 같은데. 나무아미타불. 이제는 그곳에서 더 이상 아프지 마소.”

마지막으로 환자를 위한 기도를 했다. 인생은 참으로 길지가 않다. 나는 생각한다. 한평생 산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은 살아 숨쉬는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마주하고자 하는 삶, 나와 남이 행복하고 즐거우면서도 품위 있고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인내심과 내가 만난 모든 인연의 소중함,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들이야말로 살아있는 인생길이라 생각 한다.

그러나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이 분주함이야말로 살아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작은 병원 법당 안에서 비록 분주하지만 부처님 법 만난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수많은 인연들을 자꾸 되 돌아보게 된다.



지홍 스님 (서울아산병원 병원법당 지도법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http://www.shcandle.com)

#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New** 디자인특허 출원번호 제 30-2011-0010353 / 제 30-2011-0010355



### • 칠성기도, 허공기도, 천신기도 세트

바람막이가 씌어 있는 상태  
바람막이가 없는 상태

구성 : 스텐레스 받침 1개 / 크리스탈 받침 7개  
P.C 컵받침 7개 / P.C 바람막이 7개(여분증정)

**New**



디자인특허 출원번호 제 30-2011-0034559

### • 원기둥초 (7.5Ø×29cm)

PC바람막이

용도 : 허공기도, 천신기도시 바람막이



디자인특허 : 제 30-2011-0010353 / 제 30-2011-0010355

### 삼환양초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 불자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구성되어 있어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든 신개념 제품입니다. 특히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 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초 연꽃밀납양초로 초 공양을 할 수 있습니다.



**신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 • 파라핀 오일

국내산 원액  
제조 삼환양초



### • 도자기 인등

小 가로 13cm 세로 17cm  
大 가로 15cm 세로 19cm

